

보성건설, 연탄 2만장·난방유 저소득층에 지원



보성건설은 광주지역 저소득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100세대에 연탄 2만장(1천만원 상당)을 비롯해 난방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보성건설 제공>

동부교육청, '푸른숲 그룹홈' 방문 위문품 전달



광주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형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최근 이등복지시설 '푸른숲 그룹홈'(원장 민정임)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애학생들을 격려했다. 위문품은 지난달 열린 제1회 특수교육진흥사업교육박람회에서 얻은 수익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제과제빵실에서 직접 구운 빵 등으로 마련했다. <동부교육청 제공>

영암마트 복구연합-복구청, 사회공헌활동 협약



영암마트 복구연합(대표 이종태)은 최근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송광은 북구청장과 '나의 행복' 사회공헌활동협약식을 열었다. 영암마트 복구연합은 백미 650포(10kg)를 북구청에 전달하고 향후 열리는 이웃돌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영암마트 복구연합 제공>

인사

- ◆전남대병원
 - ▲화순전남대병원장 조용범(이비인후과 교수)
 -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김윤하(산부인과 교수)
 - ▲전남대치과병원장 김재형(구강내과 교수)
 - ▲빛고을관절센터장 윤택태(정형외과 교수)
 -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장 박종훈(순환기내과 교수)
 - ▲화순노인전문병원장 김현중(간담체외과 교수)
- ◆kbc 광주방송
 - ▲대표이사 양철훈 ▲상무이사 경영분부장 조현용 ▲kbc 플러스 대표 송중욱 ▲kbc 플러스 총괄이사 김홍석 ▲서부방송본부장 신건호 ▲동부방송본부장 김중백
- ◆김제시
 - ▲도시과장 이현복 ▲건설과장 임성근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공덕면장 조기문 ▲검산동장 강진호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 이화월례회의(회장 이보희)=23일(월) 오전 11시 011-605-2059.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 =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북부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 = 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 ▲친환경농업사업단 = 고연령, 저학력, 무기술자 중에서 농사에 경험이 있는 참여주민들을 위주로 유기농산물과 연관이 다양한 채소작물의 재배를 통하여 친환경 유기농산물 영농

- 인으로 거듭나며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대상을 위주로 고령고객 및 자체 제품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상담 =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

“썩지 않는 건강한 농산물, 자연의 힘을 믿으세요”

“6년근 인삼과 100년 된 산삼 중 어떤 것의 효능이 더 좋을까요? 산삼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인삼이 산삼보다 보기 좋고, 크기도 약효까지 뛰어난 건 아니죠. 그런데 농작물을 선택할 때는 크고 보기 좋은 것만 선호하죠. 웰빙시대, 유기농·친환경 농산물이 많지만 가장 건강한 재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광주 광산구청(구청장 민형배) 상황실에서 최근 송광일 생명과학연구소 송광일(56) 박사 강연이 열렸다. 전남대학교에서 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교체소원예학과 현장교수를 맡고 있는 그는 자신을 “자연재배” 농부라고 소개했다. 송 박사가 말하는 자연재배는 유기농이나 친환경과는 달랐다. 그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자연재배를 한마디로 정의했다.

“자연재배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이 가진 본연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려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농작물은 맛과 효능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재배는 농작물을 키울 때 농약이나 비료는 물론 땅을 갈아엎는 경운(耕耘)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물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적인 농법으로 재배한 관행농산물과 비교해 수확량은 비슷하고, 품질은 월등하다고 송 박사는 강조한다.

국내에서는 자연재배 개념이 아직 낯설지만 일본에서는 70여 년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자연재배 전문가 기무라 아키노리 씨의 ‘기적의 사과’를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기적의 사과’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0년 동안 사과나무에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고 잡초도 뽑지 않았다. 대부분이 고사했으나 10년간 척박한 환경을 견뎌낸 나무에서는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사과가 열리기 시작했다. 일본 NHK방송이 실현한 결과 단맛과 빛깔이 월등한 것은 물론, 3년이 지나도 사과가 썩지 않았다. 자연재배 농법 전도사가 된 아키노리 씨는 지난 2008년 52개 작물이 자라는 송 박사의 농장을 방문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식물은 필요한 영양분을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영양분이 부족하면 뿌리를 늘려 해결하는 원리죠. 이런 과정에서 식물세포가 강인해지고 더 건강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영양분을 공급하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빠르게 자라 물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약해지는 것이지요. 비료를 쓰지 않아도 본래 가진 자생력을 키우면 농약 뿌리를 늘려 해결하는 원리죠. 이런 과정에서 식물세포가 강인해지고 더 건강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인간이 영양분을 공급하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빠르게 자라 물도 거의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자연재배 전도사 송광일 박사, 광주 광산구서 강연

을 얻는 것은 물론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자연재배는 농약이나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비용도 낮출 수 있다. 또한 포도송이를 종이로 싸우거나 나뭇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은 일손으로 가능하다. 자연재배 농작물의 자생력은 다양한 작물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올해 고충에서는 버뮤다가 농가에 커다란 피해를 끼쳤다. 반면, 송 박사가 기른 10ha 면적 논에서는 농약을 쓰지 않았지만 병충해를 겪지 않았다. 밭맛도 뛰어나서 80kg 한 가마니를 일반비의 3~4배에 가까운 80만 원에 판매해도 수량이 부족할 정도였다. 그는 지난해 9월 ‘기적의 채소’(청미래라이프)를 출간해 자연재배 농법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자연재배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체계적인 학문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를 만들 계획이다.

“학계나 농민들에게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말고, 물도 적게 줘야 한다고 하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재배가 정착되지만 하면 효과는 탁월하죠. 자연재배는 특별한 기술과 일부 작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활용 가능해요. 다양한 농가들의 조건에 맞는 자연재배 농법을 널리 알려 침체된 농가에 희망을 전하고 싶네요.” /글·사진=양세열기자 hot@

그는 자연재배가 건강한 농작물



동명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어려운 이웃에

동명고등학교는 최근 학생들이 농업시간에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담가 이웃에 전달하는 김장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농업 교과 시간에 환경체험활동으로 500여평의 학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무공해 배추를 학부모봉사회의 도움을 받아 전교생이 김장을 담갔다. 동명고는 김장김치와 추수감사절 헌금, 축제 바자를 통해 모금한 성

금으로 쌀·화장지 등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오남주 교장은 “배추 재배에서부터 김장 담그기, 이웃과 나누기 까지 학생·학부모·교사가 즐겁게 참여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추억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동명고의 즐거운 ‘나눔’ 전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문체부, 제4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9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오현(사진) 전남대 신방과 교수 등 9명을 제4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김상식 전 부산일보 서울지사장, 박상건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초빙교수, 우병동 경성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원혜옥 인하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원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정상윤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이 포함됐다. /양세열기자 hot@

주한 앙골라 대사 이명재씨

이명재(68·사진) 파파이스 아시아지역 대표가 23일 주한 앙골라 대사에 취임한다. 이 신임대사는 광주출신으로 살레시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했다.

정일윤 첨단방사선연구원, 전북 우수연구원 선정

정일윤 첨단방사선연구소 방사선 육종연구팀 책임연구원이 최근 전북 테크노파크에서 개최된 ‘2013년 전라북도 우수연구원’ 시상식에서 산업기술혁신 분야의 우수연구원 상을 수상했다. 정 박사는 지난 2005년 첨단방사선연구소에 입사한 후 8년간 생물

산업 육성 및 바이오 신소재 발굴 기획과 교부가 가치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 개발을 통해 지역산업창출에 공헌해왔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농축산식품부와 정읍시의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신종종 블랙베리 ‘메

이플’과 이를 활용한 ‘간기능조절 및 급성·만성 알코올 숙취해소제’를 지역 기업체인 (주)해베에 기술 이전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조산업기업을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라북도(재)테크노파크는 도내 연구인력의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업적이 뛰어난 연구원을 매년 발굴·격려하고 있다. /정음=박기승기자 parkss@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밧니다 弔

201호 故 조복순 님(여/76세) 子/子婦: 이명중/심미경, 차춘 女/婿: 이명희/윤재백 호 실: 201호 발 인: 12월 23일 장 지: 강진성전선영 연락처: 227-4381	301호 故 고영실 님(여/61세) 子/子婦: 최명환/서혜진, 경환 女/婿: 이명희/윤재백 호 실: 301호 발 인: 12월 23일 장 지: 남부화장동선영 연락처: 227-4382
401호 故 선종진 님(남/60세) 子/子婦: 선예민/이누리 女/婿: 선영문/이재호 호 실: 401호 발 인: 12월 2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3	402호 故 학정동 님(남/61세) 子/子婦: 박계원/조인숙, 기영/이정진, 기우/김영숙 女/婿: 박성미/방문철 호 실: 402호 발 인: 12월 23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14
102호 故 이보선 님(남/89세) 子/子婦: 이명섭/지순희 女: 이명실 호 실: 102호 발 인: 12월 24일 장 지: 영락공원 연락처: 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